

정보사회에서의 노동세계 변화*

김진영**

목 차	
I. 머리말	IV. 노동세계의 변화
II. 정보사회의 이론적 담론: 연속론과 단절론	V. 맺음말
III. 세계화, 재구조화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I. 머리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금방 맞게 되는 21세기 사회에서는 정보기술 또는 정보/지식이 사회의 각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이들이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데 상당수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적어도 대중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사회를 ‘정보사회’, 또는 ‘정보화사회’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그것의 개념적, 이론적 엄

* 이 논문은 1996년 제주대학교 해외파견연구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다.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교수

- 1)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라는 개념은 1970-80년대에 등장하여 광범위한 유행을 일으켰다. 마수다(Masuda, 1980, 1985)는 궁극적인 변화로 정보가치의 생산이 사회발전의 추동력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정보사회라는 용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벨(Bell, 1973)도 후기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후기산업사회는 서비스산업과 사회의 전략적 자원으로 작용하는 이론적 지식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사회로 규정된다. 포랏(Porat, 1977)과 마츨럽(Machlup, 1962)은 경제적 함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정보사회 개념을 사용하여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은 이는 토플러(Toffler, 1981, 1990)와 나이스비트(Naisbitt, 1982)일 것이다. 가령 나이스비트는 미국사회가 1960년대와 70년대 초에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컴퓨터가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마틴(Martin, 1988)은 관심을 단순히 기술적인 것, 경제적인 것에서 벗어나 사회적 것으로 확장시키고 정보사회를 사회로서 그려낸다. 정보사회의 개념적 쟁점에 대해서는 마틴(Martin, 1995: 1-16)과 웹스터(Webster, 1995, 27-62)를 참조할 수 있다.

밀성과 적합성에 대해서는 논자의 시각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같은 이견들은 정보사회가 기존의 산업사회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연속선상에 있는가 하는 이론적, 현실적 증거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 사회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의 조직원리와 변동의 기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드물다. 그런 만큼 정보사회라는 개념이 내용적으로는 상이한 해석들을 수반할 수밖에 없지만, 현대사회의 주요한 특징을 밝혀내는 데는 색출적(heuristic) 도구로서의 가치를 일정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Webster, 1995: 53). 과학기술혁명에 기초한 과학과 기술의 혁신은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일상생활의 내용과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산업구조를 포함한 전체 사회구조의 질서와 변동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1세기 사회는 20세기 후반에 조성된 이같은 사회구조적 변동을 뛰어 넘어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회에서 노동세계(the world of work) 또한 변화의 경향에서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다른 어느 영역에 못지 않게 노동세계는 정보통신기술 또는 정보/지식을 직접적으로 채용하고 사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가파르게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정보기술은 현재의 상황을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에 직면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어서 노동세계 또한 지속적인 적응과정에 있고 또 변화의 필요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 글은 정보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같은 노동세계의 변화 모습을 추적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보사회에서도 노동세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관심 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하다. 정보사회의 구체적인 영역 중에서 조직부문(산업조직, 국가조직 등)은 어느 영역보다도 정보기술이 생산과 접합하면서 정보사회의 특징적 징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산업사회에서 기업조직의 역할이 그랬듯이 정보사회에도 기업조직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작업조직의 전형적 원리는 테일러주의(Taylorism)와 포드주의(Fordism)였으며, 이들은 노동세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정보사회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리가 가능할 것이며 노동세계도 산업사회의 전형적 특성과 동일한 것일까 하는 문제는 현 단계 관심을 가져야 할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이다. 정보사회에서의 정보기술과 그것의 산업조직에의 적용은 산업사회의 그것과 차별성을 유지한다면 상당히 다른 형태와 내용으로 노동세계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 밝힐 논의의 순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먼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분기점을 통과하는 이 시점에서 정보사회의 출현, 위치 그리

고 그 성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쟁점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사회를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 즉 단절 또는 연속의 측면중 어느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정리는 도래하고 있는 정보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작업이기도 하다.

둘째, 세계화, 재구조화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등의 특성을 검토한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세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들로 평가된다. 70년대 말 이후 지속돼온 경제위기는 세계화와 재구조화를 통해 그 돌파구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세계화와 재구조화를 실현하는 물적 기초는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보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노동세계의 내용과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보사회에 있어서 노동세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과 성격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가 검토된다. 여기에서 정보사회가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와 비교할 때 연속성과 단절성의 측면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관점을 견지하지만, 분석적으로는 단절성에 더 초점을 맞추어 노동세계를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적 전제를 취하는 것은 정보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세계의 변화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색출적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논의된 결과를 마무리짓고 그것이 지니는 함의를 정리한다.

II. 정보사회의 이론적 담론: 연속론과 단절론

정보사회의 존재 여부와 그 실체의 내용은 보는 시각과 학자에 따라 상이하게 논의될 수 있다. 정보사회의 사회변동론적 위상과 관련하여 이러한 상이한 시각과 논점은 크게 두 가지로 대비될 수 있다(Webster, 1995: 20-26). 하나는 정보사회를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의 고도 형태로 규정하고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와 연속선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을 지향하는 학자들은 각자의 연구관심과 시각에 따라 서로 상이한 내용을 개진하고 있지만, 정보사회를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와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즉 이들 모두 현대사회에서 정보가 가지는 특별한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보사회의 형식과 기능 등 사회조직 원리는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의 기준과 본질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은 것임을 주장한다. 가령 쉐러(H. Schiller)와 기든스(A. Giddens)는 이러한 관점을 본질적으로 잘 보여주는 학자들이다.²⁾

쉐러(Schiller, 1973, 1976, 1981, 1983a, 1983b)는 현대사회와 사람들의 일상적 삶에서 정보가 지니는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적 활동의 기본요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하여

2) 이밖에 아글리에타(Aglietta, 1979), 리피에츠(Lipietz, 1987), 하비(Harvey, 1989), 하버마스(Habermas, 1989), 웹스터(Webster, 1995), 스마트(Smart, 1992) 등도 이 관점을 견지하는 대표적 학자들이다.

그는 자본주의적 특성이 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정보가 자본주의적 발전에 핵심적 기초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또한 정보와 새로운 정보기술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며 누구의 통제하에서 수행되는가에 관한 중심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정보기술의 특성과 그 전망을 제시한다. 그는 정보와 통신기술의 혁신은 시장원리와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런 만큼 상품화와 이윤추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정보가 상품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성의 원리가 핵심적 준거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시장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정보에의 접근은 사회불평등구조, 즉 계급구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보의 생산능력, 분배, 접근 등은 사회불평등구조의 위치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계급적 위치에 따라 획득되는 정보의 유형과 내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정보와 정보기술의 혁신에는 기업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특성인 이익 극대화의 추구가 개입된다고, 정보와 정보기술은 국제적 자본주의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래서 정보사회는 자본주의체제와 분리될 수 없다. 실러에 있어서 정보사회가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와 단절되어 있다고 보는 주장이 현실적합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기든스는 현대세계의 형성과 감시의 확대에서 차지하는 국가의 역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0세기말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정보사회의 역사적 위치에 대해 연속론적 시각을 취하고 있다(Giddens, 1985, 1987, 1991). 그는 근대사회가 시작부터 정보사회였다는 입장을 취한다. 근대사회에 있어서 민족국가는 17세기말과 18세기에 등장하였는데, 민족국가는 사회구성원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알아야 하는 만큼 그 출발부터가 정보사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족국가는 분배적 자원(계획, 행정)과 권위적 자원(권력, 통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감시가 전제된다. 국가권력은 정보의 지속적인 수집, 저장 및 통제를 통해 관리와 감시의 목적을 이룩하고자 한다. 민족국가가 감시 기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세밀한 많은 정보가 필수적인데, 그것은 적군이나 다른 국가들로부터 국경유지와 방위를 위해서, 그리고 시민·주민의 권리와 의무의 중대를 위해서이다. 전자의 외적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정보획득과 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후자의 내적 평화를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확보, 축적하는 것이 요긴한 것이다. 이처럼 기든스에 있어서 최근의 사회를 정보사회라 명명하고 마치 새로운 유형의 사회인 것처럼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연속론과 대비되는 입장에서 단절론적 시각은 정보사회를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와 질적으로 다른 사회구조와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연속성의 단절을 주장하는 관점을 취한

다. 여기에 속하는 이들로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벨, 토플러 그리고 카스텔(M. Castells)을 우선적으로 들만하다.” 이들은 정보사회를 산업사회와는 질적 차이를 갖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로 보고, 정보와 정보통신기술이 사회변화에 영향을 주는 면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연속론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편이다. 그래서 이들은 기술결정론적 시각에 매우 근접해 있다.

후기산업사회론을 통해 우리에게 친숙해진 벨은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체제인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Bell, 1973, 1980, 1981). 탈산업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양적, 질적으로 매우 중요해지며, 이것은 후기산업사회에서 과거와는 다른 종류의 정보와 지식이 사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후기산업사회는 과거의 사회보다 더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관리하기 위한 이론적 지식(theoretical knowledge)이 현저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자연에 대한 관리보다는 인간 상호간의 게임과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게 되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서비스가 더 중요해진다. 따라서 고용양식에 있어서도, 산업사회에서는 산업노동이 일반적이었으나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서비스 고용이 보다 지배적이게 된다. 산업사회에서 효과적인 기술의 사용으로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새로운 욕구와 서비스가 발생하며 서비스에 고용되는 인력도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산업사회가 재화를 중점적으로 생산하는 사회인데 비해, 후기산업사회는 서비스생산 중심의 사회라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 노동은 곧 정보노동이라 할 수 있는데, 후기산업사회 또는 정보사회에 있어서 지배적인 집단은 정보노동자, 전문직 종사자들로 이루어진다. 이론적 지식과 정보가 중요해지고 이와 연관된 부문에 종사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단체, 연구소 등 각종의 연구기관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 부문이 된다.

이처럼 벨에 있어서 이론적 지식은 후기산업사회를 다른 유형의 사회와 구별시켜주는 중요한 특성이다. 이론적 지식은 혁신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만큼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경험적이고 시행착오적 방법으로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는 경향이 컸지만, 후기산업사회에서는 경험주의보다 이론이 우월한 위치에 있고 이러한 지식은 다양한 영역의 경험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추상적 상징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론적 지식의 우위로 말미암아 후기산업사회에서는 과거 사회보다 미래에 대한 계획과 통제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이론적 지식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훨씬 다용도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컴퓨터화는 ‘조직화된 복잡성’(organized complexity)의 관리뿐만 아니라 이론적 지식에 기초한 혁신을 촉발시키는 지적 기술의 창조를 가능하게 해준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와 지식은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벨에 있어서 정보

3) 허쉬호른(Hirschhorn, 1984), 포스터(Poster, 1990), 보드리야드(Baudrillard, 1983a, 1983b, 1993), 피오레와 세이블(Piore & Sabel, 1984), 마틴(Martin, 1988, 1995) 등도 단절론의 범주에 합류하고 있다.

사회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영역의 확대는 컴퓨터, 텔레커뮤니케이션 등 통신기술시스템을 기반구조로 하여 정보와 지식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카스텔은 70년대이래 기술혁신에 의해 야기된 사회, 도시변동을 설명하고자 한다(Castells, 1989, 1993). 맑스주의적 접근에 기초하고 있으면서도 이로부터 상당히 이탈하여 자신의 독특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그는 자본주의적 재구조화와 기술혁신의 결합을 도시, 지역, 사회의 구조 변화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가령 그는 정보도시의 구조와 특성을 설명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산업사회에서 형성된 도시구조를 재구조화시키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양식의 변화가 출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도시와 사회의 변동을 그려내기 위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발전양식(mode of development)의 개념이 사용된다. 전자는 생산의 사회적 관계, 자본주의적 원리, 자본축적 등에 의해서, 후자는 생산의 기술적 관계(생산력)에 의해 규정된다. 맑시즘에서 사회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 규정되지만, 발전양식은 생산양식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지 못하다. 그러나 카스텔은 발전양식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지니고 그 자체의 논리에 따라 발전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생산양식과 발전양식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기는 하지만 변동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는 각기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각 사회는 고유한 발전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적 발전양식, 산업적 발전양식의 뒤를 이어 정보적 발전양식, 즉 정보양식이 출현한다고 보고 있다. 정보적 발전양식으로의 이행은 생산, 소비의 영역에서만뿐만 아니라 국가 등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며 이 과정에서 정보기술의 발전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 달리 표현하면, 새로운 사회기술 패러다임으로서의 정보적 발전양식은 생산, 분배, 소비 및 관리 등 모든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70년대 말이래 진행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경제적 조직화를 향한 재구조화는 정보적 발전양식, 즉 정보주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주의는 생산의 유연성, 비용 축소와 이윤 제고의 길을 터놓음으로써 자본주의를 재활성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의 정보통신망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어온 세계화와 재구조화는 사회경제적 조직에 대한 '정보흐름'(flows of information)의 관리 및 이에 대응의 중요성을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위의 관점들은 모두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다가오는 정보사회를 보는 데 있어서 유력한 전망들을 제시하고, 자체의 논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들 관점은 의존하고 있는 기본 전제와 가정에 있어서 매우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관점들은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구조적인 조건들의 연속성과 단절성 중 어느 하나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생각된다. 연속론은 정보사회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밝히고 그 본질과

외양을 드러내는 데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이 빚어내는 결과를 항상 목적론적인 시야에 가리우게 하는 결점을 지닐 수 있다. 단절론은 정보와 정보기술이 현대사회에서 가지는 특별한 의미와 위치를 잘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정보사회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해명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특성이 공존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현실적합성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의 전망만으로 현대사회의 형태, 기능 등 조직원리와 그 특징을 밝히는 데 제한점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연속론과 단절론은 스펙트럼상의 양극단점에 위치한다 할 수 있으며, 정보사회는 이 스펙트럼상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있다할 것이다.

Ⅲ. 세계화, 재구조화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자본주의적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 주도해나가는 과정은 자본주의사회가 출발하면서부터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광범위하고 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게 된 시기는 오일쇼크와 축적위기가 고조된 70년대 이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적응과 변화의 핵심은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과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적 하부구조는 바로 정보기술과 네트워크였다. 즉 세계화와 재구조화가 정보기술혁신의 도움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이들의 결합은 노동세계를 비롯하여 사회의 각 영역을 변화시키는 주 요인이라 할 수 있다(Webster, 1995: 316; Castells, 1989).

1. 세계화와 재구조화

세계화는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생활의 통합 증대와 인간관계에서의 상호의존과 상호침투의 증가를 의미하는 비교적 넓은 의미의 뜻을 갖는 것으로(Webster, 1995: 232),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영역 등 넓은 의미의 사회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진행중인 변화과정을 지칭한다. 이중에서도 경제영역의 세계화가 사회 전반의 각 영역의 세계화를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경제영역의 세계화가 다른 영역의 세계화를 일방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각 영역의 세계화는 나름의 독특한 성격과 구성적 논리를 각기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진행돼온 경제의 세계화, 자본의 세계화는 개별 국가들간에 이루어지는 단순한 무역체제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 이전 시기의 세계적 규모의 경제(world-wide economy)로 불리는 세

계경제의 국제적 형태는 개별 국가들간의 단순한 무역체제에 국한되며 주된 경제활동이 국민경제 차원의 수준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과거 시기의 세계적 규모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에 기초한 경제활동의 집합이며, 그런 만큼 국제금융시장이나 상품의 교역은 모두 국가 단위에 기초한 행위주체와 공적 규제자들에 의해 움직였다. 그러나 최근의 글로벌 경제(global economy)에서 보여주는 세계화는 단순한 교역의 국제화뿐만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세계적 차원에서 조직하며 이를 위해 자본, 금융, 경영관리, 기술 및 정보 등이 전세계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단위의 국민경제의 범위의 기준과 영향력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우며 국가의 경제와 기능을 위협한다. 경제전략과 경제회계 등의 단위에서 보면 더 이상 국민경제는 유일한 경제단위일 수 없다. 그러나 현대 국민국가가 각국의 경제구조,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여전히 기초적인 실재를 이루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새로운 것은 세계무역이 확대되었다는 사실보다는 국민경제가 실시간으로 세계적 차원에서의 한 단위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미 우리는 경제의 국제화과정을 넘어서 세계화과정을 목도하고 있다(Castells, 1993). 이같은 경제의 세계화를 주도해온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s: MNE)과 초국적 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초국적 기업은 금융자본과 생산자본의 지리적 이동, 해외 직접투자가 중심이 되는 경제활동의 모습을 통해(박길성, 1996: 32-3, 253) 매우 빠른 성장과 확산을 거치면서 규모와 활동범위를 확장시켜왔다.

이제 초국적 기업은 세계경제에서 지배적인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Dicken, 1992: 92), 이들에 의해 발전되고 구성되는 세계화는 다음과 같은 것을 핵심적 내용과 대상으로 하고 있다(Webster, 1995: 234-9). 첫째는 시장이다. 기업들은 전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세계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확장되어 있으며 각국의 시장은 모든 경제적 주체에게 개방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내의 각 기업들은 국내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세계시장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세계초국적 기업들과도 경쟁관계에 놓여 있게 되었다. 현재 세계시장은 북미, 유럽과 극동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둘째는 생산이다. 세계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은 세계적 생산전략을 구성하고 사업을 조정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다. 부품별, 제품별, 작업별 분업화를 통해 생산활동을 세계적 차원에서 조직, 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활동이 생산공정의 분업과 제품별 분업을 세계경제의 차원에서 조직할 경우 일반적으로 기술집약적 고임금 노동은 선진적 국민경제에, 단순육체노동과 저임금 노동은 저개발 국민경제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노동과정상으로 선진 자본주

의사회에는 고도의 숙련과 성찰성이 요구되는 설계과정과 의사결정과정이, 주변부사회에서는 노동의 탈숙련화가 불가피한 단순반복적인 노동과정으로 편성된다. 선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윤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자본축적의 위기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주변부 또는 제3세계 사회에서는 값싼 노동력과 비조직화된 노동력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세계적 단위에서의 노동과정상의 분업과 자본이동의 유동성의 정도를 높여주었다(Fröbel, Heinrichs and Kreye, 1980). 이런 점에서 노동과정과 생산의 세계화는 세계자본주의의 체제적 위기와 재구조화를 반영하는 세계적 단위의 경제활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가령 초국적 기업은 본사를 뉴욕에 두고, 설계 시설은 버지니아에, 제조공장은 극동아시아에, 마케팅과 판촉활동은 런던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Webster, 1995: 236). 그러나 최근의 다국적, 초국적 기업의 활동은 선진사회와 후진 주변사회간의 노동과정상의 제조업적, 지리적 분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생산의 세계화를 잘 지시해주는 지표인 해외직접 투자상황을 보면 직접투자는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것보다 선진국 간에 더 많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Sweezy, 1992; 박길성, 1996: 37-8).

세번째는 금융이다. 세계적 단위에서 과거보다 더 통합된 세계금융시장의 발달로 화폐, 주식, 채권, 외환 등의 거래가 실시간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이의 결과로 국제 금융거래의 양과 속도가 과거의 시각으로는 감을 잡기가 힘들만큼 증가되었다. 국제금융시장은 영국이 주요 자본수출국이 되고 런던이 지배적인 금융시장 역할을 하던 1870년에서 1914년에 처음 형성되었지만, 지금과 같은 세계금융의 출현은 80년대 중반이후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발전으로 지역적 조건이 더 이상 금융거래의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게 되면서부터이다. 세계화시대의 금융시장은 시간과 공간 제약의 제거, 개별 금융시장들이 통합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거래는 국가의 영향에 구애되지 않고 국가경계를 넘어서서 실시간으로 전지구적 수준에서 이루어진다(Waters, 1995: 88).

이상과 같은 세계화의 진전으로 세계시장에서의 기업간 경쟁은 한층 더 심화되었다. 세계시장에서 조성된 경쟁 환경은 개별 자본으로 하여금 구조개선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따라서 초국적 기업을 비롯한 각국의 기업은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사실 재구조화는 자본주의적 기업이 위기를 돌파하여 축적을 지속하려는 과정과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70년대이래 진행되는 재구조화는 과거의 것과 양적, 질적인 면에서 다르다. 세계화 과정에서 지속되는 기업간 경쟁심화와 경제적 불확실성은 기업으로 하여금 반응의 신속성과 융통성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적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지 않으면 조직의 생산성 성취와 경쟁력 제고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경제국가들의 세계

화전략은 재구조화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만하다.

재구조화는 성취의 구조적 원리를 이룩하기 위해 조직적 수단을 변형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산양식의 기본구조에 체현된 원리의 성취를 향해 움직인다. 자본주의의 경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의 충동은 본질적인 것이며, 이는 성장, 투자 그리고 소비의 엔진 역할을 수행한다. 재구조화 과정은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 이루어지며 문화적,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적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재구조화를 위한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해서 제기된다(Castells, 1989: 11, 23) 첫째, 자본은 생산과정으로부터 보다 많은 잉여를 추구하고 전유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노동과정과 노동시장의 재구조화에 의해 생산성 향상과 착취의 증가가 도모된다. 둘째, 국가개입의 강조점이 정치적 정당화와 사회적 재분배에서 정치적 지배와 자본축적으로 이동함에 따라 국가개입에 있어서 근본적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다. 셋째, 체계의 팽창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시장에 더 잘 접근하기 위해 모든 경제적 과정의 국제화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재구조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노동에 대한 것인데, 이는 노사관계정책에 대한 것과 고용규모에 대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가 노동에 대한 압박을 통하여 노동조합 운동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면, 후자는 노동력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노동력의 감축을 통한 규모축소는 흔히 다운사이징(downsizing)이라 불리고 있다. 두번째는 기업의 일부 기능(핵심기능이든 주변기능이든)을 기업외부에 하청 형태로 맡기는 아웃소싱(outsourcing)이다. 세번째는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인데,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핵심적 성과에서 극적인 향상을 이룩하기 위해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말한다(Hammer and Champy, 1993: 52). 이같은 것들을 통하여 기업조직은 고정비용을 줄여 산업의 손익균형점을 낮춤은 물론 창조적 기술과 조직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2. 정보통신기술

시장, 생산, 금융 분야의 글로벌 경제, 경제의 세계화, 그리고 재구조화는 정보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적 하부구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각 영역별 세계화는 세계적 활동에 따르는 긴장이나 부담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적 하부구조를 필요로 함과 동시에 이의 발전에 기여한다(Webster, 1995: 238-9). 정보와 커뮤니케이션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혁명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조직과 조직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의 전지구적 네트워크화는 '시간과 공간의 압축'(time-space compression)

(Harvey, 1989), '시간과 공간 분리의 조직화 조건'(Giddens, 1990: 29)을 가능하게 하고 세계화의 물질 토대 역할을 수행한다.⁴⁾

이러한 정보적 하부구조를 통해 은행, 광고, 주식거래, 보험, 금융, 상담 등과 같은 서비스의 세계적 확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것 없이는 초국적 기업의 활동이 불가능하다. 바꾸어 말하면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전과 같은 정보적 하부구조는 정보의 처리, 전달, 유통 등을 신속, 정확하게 가능하게 함으로써 세계적 기업의 일상적 경제활동의 조직과 조정, 기업내부간의 수직적 네트워크화를 가능하게 한다. 말하자면 정보와 신기술의 발전은 초국적기업의 세계화의 진전에 의해 촉진되었고 또 이를 지속시키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정보적 서비스의 확산이 세계화와 재구조화의 정보적 토대라면,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전은 세계화와 재구조화의 기술적 토대인 셈이다. 따라서 세계화와 재구조화의 진전과 더불어 정보적 하부구조를 통과하는 정보유통량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세계화된 생산과 판매전략의 조정을 위해, 생산과정의 개선과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보기술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또한 많은 수의 노동력을 고용하지 않고 노동과정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시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다운사이징의 고용조정전략도, 세계적 단위에서의 하청관계를 통해 조직을 네트워크화하여 생산, 판매, 유통을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정보통신망의 기반과 정보흐름의 관리에 의존하지 않고는 어려운 것이다.

정보통신기술과 정보/지식의 역할은 금세기 후반에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생산과정과 생산조직의 변화에 더 없이 중요한 것이다(Castells, 1993: 15-7). 무엇보다도 생산성의 원천이 생산, 소비, 분배, 무역 등 경제의 전과정에 있어서 정보와 관리의 질, 과학과 기술의 응용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응용지식과 정보가 선진경제체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새로운 지식과 그 응용이 생산성 증대에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선진 자본주의사회에서 나타난 변화는 물질적 생산에서 정보처리 활동으로의 변모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GNP에서 차지하는 규모, 고용인구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잘 나타난다. 이같은 변화는 포랏(Porat, 1977)이 개념화한 '정보경제'의 출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정보의 질과 그 효율성은 기업, 지역, 국가에 있어서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전략적 요인이 되어 가고 있다. 셋째는 이러한 생산과정 자체에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 변화 외에, 생산조직과 경제활동조직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표준화된 대량생산(standardized mass production)에서 유

4) ICT의 사용에 기반한 경제적 이점은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속도와 정확성, 대량의 정보의 저장 능력, 제조·디자인·행정관리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의 유연성, 기업과 개인들·조직내외 조직사이에 네트워킹, 정보의 디스플레이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Freeman and Soete, 1994).

연적인 고객중심의 생산(flexible customized production)으로, 수직적으로 통합된 대규모조직에서 수직적으로 비통합되거나 경제단위들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적 변화는 기업의 크기를 넘어서서 진행되고 있으며 소수 거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근본적 경향과 모순되지 않는다. 피오레와 사벨(Piore & Sabel, 1984)이 지적했던 것처럼 중소기업이 선진경제에서 역동적인 경제단위로서 보다 큰 탄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분권화와 유연성이라는 조직적 경향은 대기업의 특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자동차공업의 즉시생산체제(Just in Time)에서 보듯이 기업의 내부구조와 자회사와의 네트워크 관계에서 잘 나타난다.

요컨대 정보적 하부구조인 정보통신기술과 그 네트워크는 세계화된 경제에서 생산과 판매전략의 조정, 금융거래의 처리와 정보서비스의 제공, 상품과 생산과정의 개선 그리고 경쟁력 제고에 중심적이다(Webster, 1995: 244-5).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이러한 경제적, 조직적 변형은 인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혁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정보기술과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그 응용의 혁명 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과학기술혁명은 위에서 검토한 경제적, 조직적 변동에 의해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응용과정에서 자극되고 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과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은 그 같은 변동과 글로벌 경제의 형성을 위한 필수적인 물질적 토대를 형성하였다(Castells, 1993: 19).

IV. 노동세계의 변화

산업사회에서의 핵심적 생산방식은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에 기초하여 직무설계와 작업조직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산방식은 구상과 실행을 분리시켜 복잡노동을 단순 노동화하고 숙련노동을 탈숙련화시킴으로써, 노동세계의 모습이 희망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인 경향을 상당부분 보여왔다. 이같은 생산방식하에서 노동자들은 직무를 단순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높은 정도의 노동소외를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노동운동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경향이 누적되는 가운데, 70년대이래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것의 생산영역에서의 채용은 기존의 핵심적 생산패라다임으로서의 포드주의를 상당히 위협하기 시작했다.

정보기술혁명이 빠른 속도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보사회에서의 노동세계를 보는 시각에는 이미 앞서 본 바 있듯이 극단적으로 엇갈린 두 개의 관점이 스펙트럼의 양극단을 형성한다. 정

보사회를 고도산업사회로 파악하는 이들은 차별성보다는 동질성이 노동세계에 나타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구상과 실행의 분리, 통제의 집중, 탈숙련화와 노동의 격하, 노동소외, 노동력구성의 양극화 등이 더욱 심화되는 등 노동세계는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내용으로 다가서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차별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정보사회에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으로 과거의 경직된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이 더 이상 주도적인 방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인 포드주의는 이전의 수공업적 생산방식에 비해 괄목할만한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세계의 악화와 시장조건의 변화로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인 포스트 포드주의(Post-Fordism)로의 전환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최근 전개되고 있는 생산조직의 고용 규모 축소, 재구조화, 슬림화 등은 포스트 포드주의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과학기술혁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거해 진행되고 있는 포스트 포드주의 생산체제하에서는 구상과 실행의 통합, 통제의 분산화, 숙련상승, 노동의 참여증대가 가능하며, 따라서 노동세계가 과거에 비해 유연적이고 풍부하며 역동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본 절에서는 차별성을 강조하는 단절론의 시각에 상당부분 준거하여 노동세계의 변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성찰적 지식노동의 출현과 노동의 질적 변화, 작업조직, 노동통제, 고용형태와 고용문제, 그리고 노동운동 등과 관련된 변화와 그 의미를 따져 보기로 한다.

1. 성찰적 지식노동의 출현과 노동의 질적 변화

테일러-포드주의하에서 노동자들이 노동과정에서 갖는 지식은 상당히 제한된 것이었다. 세분화된 직무의 수행이 전체적인 작업과정에 대한 조망과 지식의 필요성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숙련수준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의 노동과정에서는 다기능을 갖춘 숙련노동자가 요구되며, 이러한 숙련형성을 위한 기제가 조직내에 체화된다. 조직내의 노동자들의 권한 확대도 수반된다.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체제전반에 대해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생산의 전과정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개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 작업장에서 사용 되는 정교한 기계와 기술에 대한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도 요구된다. 노동자들은 점점 더 자기 감시적이 되고, 소비자들의 요구, 시장판매와 기술혁신에 대해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찰성의 요구가 더욱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의 생산체계하에서는 직접적 노동과정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이었다. 손노동에 의존하는 전통적 노동과정의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에 기반한 생산체계하에서는 설계과정(design process)이 직접적 노동과정에 비해 그 중요성이 커진다.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확산으로 노동과정의 재조직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노동과정에서 손노동의 중요성은 감소하는 대신 설계 또는 지식의 집약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과거와는 달리 생산과정의 많은 부분이 지식집약적인 기획과정으로 이루어지며 물질적 노동과정은 점차 그 비중이 축소되는 것이다. 최근의 상품의 생산과정은 보면 설계가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이 쉽게 발견된다. 이것은 상품의 생산이 상정과 결합하는 정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품제조과정에서 정보적 가치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노동은 지식, 설계집약적인 성격을 띄게 된다(Lash and Urry, 1994; Lash, 1991, 1994; Webster, 1995: 259-60). 설계과정에서는 추론적, 성찰적 지식(discursive/reflexive knowledge)이 요구된다. 이 설계과정에서는 참여적 직무설계가 이루어지면서 노동의 질도 상승되는 경향을 보인다.

산업사회의 노동과정에서는 경험의 전수를 통해 익히게 되는 전통적 숙련과 기술을 요구하였지만 정보사회에서의 새로운 생산방식은 이전과는 다른 지식을 요구한다. 이러한 지식은 경험적 숙련보다는 체계적인 학습과정과 다른 지식과의 연관성에 의한 담론과정을 통해 얻어지며 문제제기와 문제해결을 위해 체계자체에 대해 이성적으로 비판해냄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 이른바 ‘성찰적 지식노동’ 또는 ‘상징분석적 서비스’가 정보사회에서는 중심적인 것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박형준, 1994: 71; Lash, 1994). 성찰적 지식은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가공, 비교, 분석, 판단하는 노동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숙련내용이 될 것이다. 이같은 성찰적, 상징분석적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정보처리 능력을 함양하고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설계과정, 지식집약적인 기획과정이 노동과정에 비해 두드러진다고 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이 과정의 핵심에 참여함으로써 변화된 노동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노동집단에 따라 노동세계는 상이하게 구성될 것이고 이들의 계층적 위치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크게 볼 때 정보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노동자집단은 지식노동자 상층, 지식노동자 하

5) 래쉬는 성찰성을 구조적 성찰성(structural reflexivity)과 자아성찰성(self-reflexivity)으로 구별한다. 전자가 행위자가 사회구조의 규칙과 조건들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존재조건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행위자들이 자신 스스로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Lash, 1994: 115-6).

층, 반숙련노동자, 주변적 노동자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박형준, 1994: 78-87; Reich, 1991: 171-84). 상징분석가(symbolic analyst)로 명명될 수 있는 지식노동자 상층은 전문적 지식에 기반하여 성찰적, 자율적, 구상적 노동을 수행하는 층으로 지식노동자의 최상층을 유지한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이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상징분석가들은 상징조작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며 전략적 중개를 담당한다. 상징에 대한 조작은 분석기법을 구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혼자 또는 소규모 팀에서 작업을 하며 전세계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갖는 대규모조직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지식노동자 하층은 조직내에서 피통제적 위치에 있으면서 일상적이고 규격화된 지식노동, 설계 및 서비스 노동과정내에서 구상기능의 보조역할 또는 실행기능을 수행한다. 수적으로 지식노동자 하층은 상층보다 훨씬 많다. 지식노동자 하층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전문적 자격과 대학수준의 교육이며 이들중 일부는 경력의 축적이나 질 향상을 통해 상층으로 이동해가기도 한다. 반숙련노동자는 커다란 밀폐된 공간에서 표준절차와 코드화된 규정에 따라 기계작업을 행하는 전통적인 산업노동자들인데, 정형화된 관행과 경험에 의거하여 실행기능만을 수행한다. 이들은 대량생산기업에서 전통적인 산업노동자가 행하던 유형의 반복적인 작업을 주로 한다. 여기에는 정보처리업무의 말단작업을 수행하는 단순서비스 노동자들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주변적 노동자층은 임금노동자의 최하층을 이루는데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노동을 수행한다.

사실 과학기술과 정보기술이 제조업의 공장, 사무실뿐만 아니라 전산업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노동의 질(quality of labor)의 방향이 과연 쇠퇴할 것이냐 아니면 상승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론적 시각과 경험적 연구성과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논의되어왔다. 이러한 시각들은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숙련화론을 들 수 있다. 정보사회론자들 또는 후기산업사회론자들은 정보사회가 진척됨에 따라 노동은 자율적, 창의적이고 다기능적으로 새롭게 정리될 것이기에 노동자들의 숙련은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있다. 정보기술이 일상적이고 단조로운 일을 처리하게 되어 노동자는 이제 자질구레하고 반복적인 일에서 벗어나 문제의 해결, 고객과의 접촉 등과 같은 창조적 일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Bell 1973; Piore and Sabel, 1984). 두번째는 탈숙련화론인데, 정보화가 진척될수록 노동은 더욱 타율적이 되며 단기능중심으로 파편화, 단순반복적인 것이 되어 숙련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브레이버만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 응용되면서 구상과 실행의 분리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며, 그리되면 노동은 점점 더 파편화되고 단순화되어 공장과 사무실, 전문기술직 등 모든 부문, 직종, 직위에서 숙련해체와 쇠퇴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Braverman, 1974). 세번째

시각은 숙련화론과 탈숙련화론의 대립적 경계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양쪽 방향의 효과를 적절히 결합시키려는 절충적 입장이다(Form et. al., 1988; Kelly, 1990). 가령 숙련이란 정보화의 정도, 시장수요, 조직적 맥락, 노사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상황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상황관련론은 이러한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숙련의 변화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이같은 입장차이를 감안하면, "현단계에서 정보사회에서의 노동의 질적 방향이 어떠한 곳으로 향할는지 예단하기는 매우 힘들다(김진영, 1994: 72). 정보기술자체만으로 노동의 숙련 변화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과정에서 기술적 변동과 직무설계는 시장에서의 요구와 노사간의 정치적·사회적 과정 등 조직 내외의 상황적 조건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술적용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숙련화 또는 탈숙련화일 수만은 없는 것이다(Littler, 1982; Wilson, 1988; Lee, 1988; Orlikowski, 1988; Wood, 1989).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실제의 결과는 후기산업사회론 또는 정보사회론자들, 노동과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가변적이며 비예측적일 것으로 보인다(Wilson, 1988; Knights and Sturdy, 1990). 기술유형이 기업조직에서 노동집단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듯이 그 효과로 나타나는 노동의 질적 변화도 노동집단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문제의 발견과 해결을 위해 기호와 상징을 주로 다루는 지식노동자 상층으로 갈수록 노동의 질이 상승될 것이다(Reich, 1991). 이들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일을 하는 만큼 성찰적 지식의 활용도가 매우 크다. 반면 반숙련직 노동자나 주변적 노동자층의 경우는 노동의 질적 상승이 확보되기 어려울 것이다. 단순사무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탈숙련화의 경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전문기술직과 관리직에서는 일부 숙련이 상승될 수 있으나 다른 일부는 숙련이 하락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노동의 질적 상승은 지식노동자 상층집단, 넓게는 지식노동자층에 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성찰성의 '승자'가 되지만 이들밖에는 다수의 성찰성의 '패자'가 존재한다(Lash, 1994).

- 6) 이러한 입장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숙련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그 까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숙련의 개념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모호한 상태로 쓰여져왔다. 노동과정의 변화와 관련해서 규정되는 일반적인 정의는 숙련이 주로 장인적 지식, 구상과 실행의 통합, 노동자 스스로에 의한 자율적 통제 등(Thompson, 1983: 92)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중 어느 하나를 가리키다가 다른 경우에는 복합적인 것인 것으로 정의되곤 하였다. 그래서 탈숙련화라는 개념의 의미도 오랜 경험과 교육을 통하여 획득된 업무적 지식과 기량이 불필요하게 된다면, 구상과 실행의 분리가 심화되었다거나 또는 직무의 재설계로 노동자가 그 직무에 대해 가졌던 통제력이 상실한다는 것을 가리킨다(Clegg and Dunkerley, 1980: 465).

2. 작업조직

정보기술의 발달은 작업조직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그 작업조직의 위계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테일러-포드주의적 작업조직의 일반적인 형태는 복잡한 상하 수직적 위계구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라인조직이 그 전형을 이루었다. 작업조직의 운영, 작업의 지침과 지시 등이 위계구조의 최정점으로부터 최하점까지 권력의 위계사다리를 타고 전해진다. 최고경영진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집행하는 이러한 업무시스템은 급변하는 시장수요와 기술변화 등 조직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최근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조직과 행정조직에 일어나고 있는 리엔지니어링은 이러한 조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 식의 업무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종전의 부·과제도를 해체하고 팀제를 도입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 근거하고 있다. 팀제는 종전의 의사결정과정의 중층적 성격을 단순화시키고 팀구성원들이 비교적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분권화와 자율성의 바탕 위에서 이러한 팀제에 권한이 부여되고 스스로 의사결정의 기반을 마련해줌으로써 구성원들은 자율성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력분산형 작업조직의 핵심적 특징은 '쌍방향적(interactive)' 의사소통이 중요한 의사소통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쌍방향적 의사소통은 권력의 흐름이 어느 한 곳으로부터만 나오는 일방향적 의사소통방식과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한다. 네트워크 전자공간을 통해 행해지는 의사소통은 다면적이고 쌍방향적이다. 종전의 업무결재와 달리 전자적으로 결재가 이루어지고 회의조차 영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관료제적 규칙과 권위주의적 위계질서는 그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연공서열제와 피라미드형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조직구조가 도전을 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작업조직의 형태변화와 의사소통방식이 이같이 변화한다고 해서 최고경영자나 행정가의 권한이 일방적으로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최고경영진은 조직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부서들간의 업무체계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부서가 이룩한 업적을 평가하는 등 조직내의 정보를 즉각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조직전체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와 권력의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기업은 지역적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노동력을 사용하고 지역적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기업의 본점규모를 축소하고 지점들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분권화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된다(Webster, 1995: 157).

이같은 변화들은 보는 이에 따라 권한의 집중 또는 분산이라는 상충된 현상이 각각 부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집중과 분산은 동시적 현상이다. 정보통신망의 형성은 경제적, 사회적 조직의

많은 측면을 분권화시키면서도 의사결정의 집중화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정보흐름의 관리를 통해 본부는 분산되고 분권화된 단위조직들의 이해를 감시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화된 정보체계는 기업들에게 그 활동을 전세계로 분권화할 수 있는 하부구조를 제공해줌과 동시에 지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조직체를 통합하고 집중화된 관리를 통해 전체적인 통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해준다(Webster, 1995: 326).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작업조직들간의 관계에도 일정한 변화가 나타난다. 종전 기업의 경우 수직적으로 통합된 체제를 형성하였다(권태환·조형제 편, 1997: 190-2). 모기업은 개발, 구매, 생산, 판매의 모든 기능을 기업내부에 수직적으로 통합, 보유하거나 투입되는 부품들의 거의 전부를 자신의 하청기업에서 조달하였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다른 모기업에 속한 하청기업들에서 조달하는 부품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하청기업이 복수의 모기업과 거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직적으로 통합되었던 기존의 기업 조직이 수평적으로 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가령 기업 기능중에서 핵심적이고 우수한 기능은 남겨두고 나머지 기능은 다른 기업과의 네트워크적 협력관계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기업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하는 가상기업이 출현한다. 이러한 예로 이테리의 세계적인 의류기업인 베네통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 노동통제와 감시

고용주의 시각에서 볼 때 노동통제는 관료제적 조직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고용주가 그것의 잠재적 능력을 고려하고 구매한 것인 만큼, 노동력을 노동으로 전환시키고 노동의 예측성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통제가 관리적 목표의 중심적 문제로 규정되기 때문이다(Littler, 1990). 관리적 권위의 행사, 즉 통제는 고용주의 시각에서 볼 때 시장조건에 대응하여 변화된 조직과 기법들에 노동력이 적합하도록 해야 하는 것과 노동자들의 행위에 대해 노동자 스스로의 독립적인 통제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고용주에게는 통제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지닌 사람이 생산활동조직에서 주도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관리통제전략의 주체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Friedman, 1990: 179). 고용주는 노동자들에게 작업에 대해 지시, 훈련, 평가, 보상하고 노조를 관리하기 위해 채택하는 총체적인 계획과 정책으로서의 관리전략을 작업관계, 고용관계, 노사관계 등의 영역에 걸쳐 모색하게 된다(Gospel, 1983). 그러나 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모든 통제와 관리전략은

모순들을 내포하는 만큼 다양한 기법과 관리형태들이 실험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관리전략은 관리자의 의도를 반영하지만 노동자도 개별적, 조직적 대응과 실천을 통해 관리전략을 직·간접적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노동조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전략은 기업조직 내의 제반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된다(김진영, 1994: 53-68).

정보기술은 관리를 위해 발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리적 이해에 유리한 사회관계와 노동을 구조화하고, 그리하여 노동과정에 대한 관리적 통제를 증가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관료제에 있어서 지배적인 통제의 하나는 행위적 통제에 있었는데, 이는 공식적인 규칙 지향성, 전문화와 분업, 제도화된 위계와 경력 지향성에 기반하였다. 그렇지만 정보사회에서 있어서의 조직은 생산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덜 직접적이고, 유연한 형태의 통제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관념적 통제(ideational control)라고 명명될 수 있는데(Rosen and Baroudi, 1992), 20세기 후반 정보사회에서의 조직적 통제의 중심적 형태로 작용한다. 이것은 신념, 가치, 태도, 합리성 등 관념의 영역을 구성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통제의 초점으로 삼는다. 이는 컴퓨터에 기반한 기술에 의해서 가능해진 관리적 체계모니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명시적 규칙지향성의 제거, 포괄적이고 엄격한 위계의 제거, 과업의 탈테일러주의화, 집중화를 통한 분권화의 출현, 전문가적 과업의 일상화, 복잡한 과업의 재구조화, 탈전문화, 비가시적 통제의 확대, 관료적 생산의 시공한계의 초월 등을 통해 관리적 체계모니의 유지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짐으로써 확립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통제의 유형은 관료제적 통제에서 포스트 관료제적 통제로 전환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표로서 제시하면 <표>와 같다.

<표> 조직적 통제의 양식과 형태

통제의 형태	통제의 양식	통제의 기초
단순통제, 위계적 통제	지 배 적	직접감시, 소유자/직공장/관리자의 구분, 분업과 직무파편화, 구상과 실행의 분리
관료제적 통제	체계모니적	명시된 규칙지향성, 행위적 동조와 규칙가시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체계, 포괄적이고 엄격한 위계계층, 분업과 직무파편화, 구상과 실행의 분리
포스트 관료제적 통제	체계모니적 (확 대)	관념적 초점, 정보기술에 기반하고 과업 구상과 실행을 통합화하는 기술체계, 매트릭스 형태, 느슨한 연결, 범위 확장 규칙, 다중론적 팀

출처: Rosen and Baroudi(1992: 219)에서 재구성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포스트 관료제적 통제가 증대하는 가운데 정보기술과 네트워크 시스템이 가져올 감시체제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술은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 관리 감독과 모니터링의 완화를 가능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노동과정에서 새로운 감시의 강도를 강화시키기도 한다. 공간적 범위의 제약성 극복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기술은 원거리의 노동자들까지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기술은 노동이 일어나는 장소의 중요성을 감소시킨다.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자감시는 과거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며 강도도 한층 더 강화된다. 기존의 감시체제보다 가시성은 약화되지만 침투성은 더 강하다. 정보기술은 팬옵티콘(Panopticon)적 투명성과 감시성의 상황을 생산해낼 수가 있는 것이다(Foucault, 1979; Lyon, 1994: 129-30). 작업장내 컴퓨터 네트워크화, 전자신분증(IC 카드) 도입,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작업관리컴퓨터 시스템 등 전자정보적 관리시스템은 작업장 감시체제에 활용될 수 있으며 사람에 의한 직접관리보다 오히려 노동통제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개연성이 커진다.⁷⁾ 기든스가 자본주의기업에서 관리의 핵심은 감시라고 보았던 것처럼(Giddens, 1987: 175), 컴퓨터 수치제어기(CNC), 로봇과 일의 착수시간, 생산율, 출석여부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컴퓨터 단말기 등은 감시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Shaiken, 1985).

물론 이러한 정보기술에 의한 노동통제의 강화는 고용주 혹은 관리자가 애초에 마음속에 의도했던 목표가 아닐 수 있다. 작업장의 불필요한 손실을 제거해주고 작업장 정보의 흐름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게 하는 것이 목표일 수 있다. 이러한 목표가 수행되면 조직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처음부터 노동통제의 강화가 의도된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기술의 사용으로 노동통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컴퓨터 감시가 애초에 관리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 아니고, 그 감시가 반드시 수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새로운 기술의 사용은 '컴퓨터화된 테일러주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컴퓨터를 통해 관리자가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리자는 노동자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세밀히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과정에 대한 보다 깊은 접근과 지식은 노동자들에 대한 보다 큰 통제가 생산될 수 있는 것이다(Lyon, 1994: 131).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이 그 자체로 감시의 기능을 담지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컴퓨터와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과의 결합은 감시의 기능을 탁월히 수행할 수 있으며, 이것은 생

7) 컴퓨터에 의한 노동통제의 강화는 다음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유추될 수 있다. "작업관리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시간, 분, 초 단위의 생산계획량이 책정되어 있지요. 화장실, 휴게실 갈 때도 컴퓨터 입력을 해야 합니다. 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작업장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작업장은 '교도소'라 불리기도 합니다"(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P씨 인터뷰, 한겨레 신문, 1998. 11월 16일자).

산과정에 국한되지 않고 그 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영역에 걸쳐 작업장의 감시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정보사회를 감시사회로 보는 의견은 경청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4. 고용형태와 고용문제

테일러-포드주의는 작업장에서의 피라미드식 위계구조화, 노동에 있어서의 구상과 실행의 분리를 바탕으로 단순 미(반)숙련 노동력을 대량적으로 투입하여 단순반복적으로 작업수행을 진행시키는 방식을 취했다. 포디즘은 기계화된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했으며 일단 라인을 구축하고 나면 유연성의 정도는 매우 떨어졌다. 생산체제는 고비용을 요구하였으며 생산과정에서의 융통성이 거의 없는 경직된 것이었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는 테일러-포드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게 되는데, 생산체제도 신기술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구성됨으로써 조직적 유연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단순반복적인 일들이 상당부분 자동화되면서 일정한 장소에서 노동자들이 집합적 노동을 할 필요성이 크게 감소하고 노동유형의 변화도 이루어져서 지적 노동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용형태도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다양화하게 된다. 조직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인력을 비정규적으로 채용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즐겨 취하며 고용형태도 원격근무나 재택근무, 시간제 고용, 임시고용, 파견근로자 고용 등 변형근로제가 과거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짧은 기간에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변하는 직종일수록, 기술과 시장의 변화가 빠른 산업일수록 이같은 고용형태는 증가한다. 예를 들어 유연근로제도의 확대에 따라 자기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에서 처리하는 재택근로자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유연근로제가 증가하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드주의적 생산체제하에서는 대량의 생산노동자가 필요했으나 정보기술과 자동화의 확산으로 고정인력의 비중이 감소하는 등 생산과정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의 종류별, 기간별로 계약을 새로이 하면서 재계약 또는 재고용의 형태로 근무를 지속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즉 노동시장과 노동의 유연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시장만 해도 기업내 숙련의 변화 또는 퇴화로 기업 내부노동시장이 약화될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경험적 숙련보다는 지적 숙련의 중요성이 상

- 8) 생산체제의 다양한 변화중에서 확산범위와 지속기간의 측면을 고려할 때 대표적인 형태는 스웨덴식 기술체제(Swedish Sociotechnical Systems), 일본식 린생산(Japanese Lean Production), 이탈리아식 유연전문화(Italian Flexible Specialization), 그리고 독일식 다양화된 품질생산(German Diversified Quality Production) 체제를 들 수 있다(Appelbaum and Batt, 1994: 29-54).
- 9) 반대로 정보기술의 확산은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강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전문기술인력이 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 비중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이들의 고용을 안정시켜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기업들은 내부노동시장의 운영을 통해 이들에게 유인을 제공하고 이들을 기업내에 잔류시키려 하기 때문이다(권태환·조형제 편, 1997: 219-20).

대적으로 커지고 급속한 기술혁신에 따라 기존의 경험적 숙련이 불필요해진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불안정고용이 증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구조의 변화도 나타난다. 사실, 고용에 대한 정보기술의 영향은 80년대 지속돼온 논쟁중의 하나였다. 정보기술은 노동자들을 대체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고용에 대한 정보기술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에는 많은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 정보기술의 고용에 대한 영향은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엇갈린다. 정보사회론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낙관론자들은 정보노동자 또는 지식노동자들이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듯이 정보사회에서도 수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정보사회론자들은 지식노동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서비스제공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들은 오랜 교육과 훈련을 통한 높은 수준의 기술적 숙련과 이론적 지식을 갖는 것으로 특징지워진다고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정보기술은 쉐퍼터가 자본주의를 주기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본 '창조적 파괴'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된다. 정보기술산업은 새로운 경제적 팽창과 직업창출의 스프링 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이다(Perez, 1985; Miles and Gershuny, 1986; Freeman 1987; Kumar, 1995: 24).

그러나 비판론자들의 견해는 이와 대조적이다. 텔레마틱스, 특히 컴퓨터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이 결합하는 시너지 효과로 노동세계, 특히 고용부문이 전면적으로 황폐화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가령 노라와 밁크(Nora and Minc, 1980)는 은행, 보험회사, 정부부서, 텔레커뮤니케이션부문, 제조업의 부수적인 부서들에서 많은 노동자집단들을 제거할 만큼 텔레마틱스가 엄청난 생산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리프킨(Rifkin, 1995)은 정보기술과 리엔지니어링의 확산으로 인해 제조업은 물론이고, 서비스부문, 도소매부문, 농업부문 등 사회의 전산업에 걸쳐 노동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으며, 앞으로 정보기술은 보다 정교화되고 저렴하며 폭넓은 범위의 정신 및 육체활동을 더욱 더 통합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세계의 인구가 두 개의 집단으로 분해되는데, 즉 기술과 생산력을 통제하는 새로운 전세계적 엘리트들인 상징분석가들과 점차 증가하는 항구적으로 대체되는 노동자집단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블루칼라는 21세기 중엽쯤이면 역사에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며, 이들은 기술능력을 향한 끊임 없는 행진의 희생물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정보기술의 고용에 미친 영향은 이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적용으로 노동의 수요와 공급간에는 불균형이 커질 것이고 생산의 유연성은 노동력의 유연성을 또한 필요로 하므로, 고용의 불안정과 부분적 고용의 형태는 확산되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정보사회론자들이 주장하는 지식노동자 증가는 전체고용의 증가로 이어지기보다는 특정의 노동계층의 고용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정보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지식노

동자일 수는 없으며 공장이나 사무실의 일상적 노동자 또는 관행노동자들은 새로운 기술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¹⁰⁾ 이렇게 본다면 새로 창출되는 지식노동자와 대체되는 많은 관행적 노동자들의 이분법적 노동양극화를 주장하는 리프킨의 주장은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기술에 의한 일자리의 제거는 블루칼라 노동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세계 전체에 적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고용규모에 대한 정보기술의 순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작업이다. 여기에는 기업규모, 산업유형, 작업장에서의 기술과 재구조화의 결합성격, 노사관계, 시장변화, 노동시장 정책, 세계화와 국제분업 등 많은 요인들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한 예로 기업규모별로 신기술의 고용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크리스티(Christie et al., 1990)는 대기업에서는 극소전자 기술의 사용이 크면 클수록 일자리 상실이 큰 반면, 20인 이하의 소기업에서는 고용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신기술은 고용감소에 영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의 효과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보화와 고용간에는 항상 긍정적 관계나 부정적 관계로 일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인식될 필요가 있다. 신기술발전에 의한 일자리 상실은 일자리 증가라는 요인에 의해 역전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정보기술이 산출단위당 노동시간을 명백히 감소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보기술 자체가 실업을 야기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새로운 생산체제하에서 일의 종류가 양적, 질적으로 바뀌고 일의 성격도 변화하는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생산체제는 새로운 노동력을 요구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정보적 숙련을 획득하는 데 실패한 개인이나 집단은 일에서 추출되거나 등급하락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Castells, 1996: 263-4).

5. 노동운동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보사회에서의 노사관계와 노동운동의 위상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자.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기술에 의해 야기되는 노동의 변화는 노동운동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야기

10) 정보사회에서 지식노동자층이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선진국에서도 전문기술직 종사자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고 있지는 않으며, 정보화·자동화된다고 하더라도 단순노동자들이 무한정 감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육체노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간관리자등 화이트칼라 직무에도 자동화가 적용되며, 그리되면 이들중 적지 않은 수가 단순노동자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중간관리자의 일부는 일상적 업무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한편, 다른 일부는 위기를 겪게 된다. 후자의 보기로 정보화로 최고경영자가 현장의 정보를 직접 챙기는 것이 가능하고 또 일선의 노동자들에게도 의사결정 권한이 증대하면서 중간관리자들에게 주어졌던 감독기능이 제거되고 있다.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경제구조와 작업장의 객관적 조건의 변화가 노동운동에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벨, 토플러 등과 같은 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의 제의의식과 혁명적 제급행동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면 노동운동에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하는 변화는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신기술이 기본적으로 노동절약적, 노동대체적 경향(labour-displacing tendency)을 갖고 있다는 점이 노동운동에 대한 도전으로 작용한다. 자본주의역사에 있어서 기술혁신은 노동절약성을 항상 추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극소전자혁명에 의한 신기술은 과거의 어떤 기술유형보다도 노동절약성과 노동대체성의 효과가 크다. 실제로 신기술의 확산으로 동일한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력의 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로봇 한 대는 6-8명, CNC는 3-5명의 인원절감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형준, 1994). 현재 진행중인 세계화와 기업을 비롯한 조직의 재구조화는 정보기술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들은 궁극적으로 노동절약적 효과를 산출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이러한 신기술의 내재적 성격은 노사관계에서 노동측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운동의 기반 강화를 저해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형태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또한 노조의 객관적, 주관적 힘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앞에서 본 바 있듯이 변형근로제의 증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커지게 된다. 다양한 범위에 걸친 고용계약 형태의 증가는 지금까지 지속돼온 노동계약에 수정을 가하는 것이다. 숙련직, 전문직 노동자들이 계약제에 기반하여 고용되며 신기술의 도움으로 장외노동자의 사용도 크게 증가한다. 파트타임노동, 계약제노동, 주말노동, 임시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들은 노동자간의 연대감을 저해시키며 정체감 형성을 위한 기반을 위협한다(Francis, 1986; 선한승, 1996; Castells, 1996 : 264-72). 고용형태와 고용계약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급여체계를 또한 변화시킨다. 연봉제, 성과급제 등 능률급으로의 전환이 일반화된다. 이러한 급여체계의 전환 또한 노동자들의 공통의식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될 것이다. 세계화로 국가간, 기업간 노동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공장, 동일한 장소, 동일한 노동과정과 노동시장 하에 있는 노동자들이 연대감을 형성하고 제의의식과 제급행동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산업사회적 조건과는 달리, 정보사회에 있어서 고용조건은 제의의식의 동질화보다는 이질화와 해체가능성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간다.

산업구조와 계층구조 변화 역시 노동운동에 도전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 정보사회에서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커지게 되면 산업노동자에 기반을 두었던 노동운동은 변화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는 많은 노동력을 대규모 공장에 밀집시켰으며 대규모 공

장에서는 높은 조합밀도를 바탕으로 강력한 노조조직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지식산업과 서비스산업은 이같은 노조조직의 기반을 이질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어서 노동운동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을 수 없다. 객관적으로 노동자의 동질성은 더욱 약화되는 반면에 이질화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이질화는 노동자 내부의 계층화로 이어진다. 경제의 지식화, 서비스화로 노동의 이질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노동자내부에서는 계층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런 점은 임노동의 동질성 명제의 타당성을 의문시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식노동자의 출현으로 노동의 계층구조는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다면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의 수평적, 수직적 분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운동은 존재기반과 이해관심이 다양한 노동자들을 어떻게 결집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기업활동이 점점 더 전문화, 세분화되고 기업간 경쟁이 가속화되는 점 또한 노동운동에 새로운 짐을 지워주고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을 기점으로 자본, 인력, 기술, 경영 등 생산의 제요소들이 국가간 경계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각국의 기업들은 세계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쟁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기업들은 정보기술을 매개로 재구조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 강화의 한 수단인 재조직화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우위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운동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정보사회에서의 노동환경은 산업사회의 그것과 달리 재구성될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 기업은 세계화시대의 생존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기술의 혁신을 통해 사업기반을 재구축하고 경영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생산, 판매, 관리 그리고 서비스체제 등의 사업재구성은 정보기술 발전을 매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비용축소, 생산성 제고 등을 겨냥한 것이다. 경영혁신은 조직의 유연화 전략 중심의 조직개편, 인력조정과 배치전환 등의 고용조정, 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다기능화를 제고하는 능력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선한승, 1996: 321). 이러한 것들은 노동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가령 정보기술 도입과 사용에 대해서 노조는 보다 민감해질 것이다. 정보기술 혁신은 노동절약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존의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을 항상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정보기술은 노동자들이 가졌던 숙련과 기능을 해체시키기 때문에 기존 고용인력에게 새로운 교육과 훈련을 요구하게 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노동과 노동운동의 약화를 초래하는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며, 새로운 노동운동의 가능성은 이같은 노동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읽어내고 대처해낼 수 있는 노동자와 노조의 능력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V. 맺 음 말

오늘날 노동세계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는 세계화, 재구조화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일 것이다. 세계화와 재구조화는 70년대 이후 축적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적응과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 혁신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왔으며, 이들의 결합은 노동세계를 비롯하여 사회의 각 영역을 변화시키는 주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글로벌 경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단순히 개별국가들간의 단순한 무역의 국제화수준을 넘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세계적 차원에서 조직하며 이를 위해 자본, 금융, 경영관리, 기술 및 정보 등이 전세계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세계화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초국적 기업이며, 이들은 세계경제에서 지배적인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초국적기업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시장, 생산, 금융 분야를 핵심적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은 세계시장에서의 기업간 경쟁의 심화와 경제적 불확실성을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초국적 기업을 비롯한 각국의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변화된 세계적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재구조화는 생산양식의 구조적 원리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적 수단을 변형시키는 과정이며 다운사이징, 아웃소싱, 리엔지니어링 등은 재구조화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장, 생산, 금융분야에서의 세계화와 재구조화는 정보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적 하부구조인 정보기술과 네트워크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보통신기술은 생산과 판매전략의 조정, 금융거래의 처리, 생산과정과 조직구조의 개선 그리고 경쟁력 제고에 정보적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이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토대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산업사회에서 지배적인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은 구상과 실행의 분리를 통하여 복잡노동을 단순노동화하고 숙련노동을 탈숙련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보기술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사회에서의 노동세계는 포드주의하의 그것과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우선 성찰적 지식노동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식과 정보에 기반한 설계과정이 손노동에 의한 직접적인 노동과정의 비중을 압도하고 있다. 설계과정에서는 정보적 가치의 비중이 커지며 노동자들은 자기감시적 환경하에서 소비자들의 요구, 시장판매와 기술혁신에 대해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이 설계과정에서는 노동자들의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직무가 구성된다. 과거의 노동과정에서는 경험을 통해 획득되는 전통적 숙련이 중요해졌으나 설계과정에서는 경험적 숙련보다는 문제의 제기와 해결을 위해 체계자체에 대

해 성찰함으로써 획득되는 성찰적 지식이 중요해진다. 정보사회에서는 성찰적 지식노동, 상징분석적 서비스 노동이 중심적인 노동으로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찰적, 상징분석적, 추론적 지식이 모든 노동집단에서 요청되는 숙련의 내용은 아니다. 이러한 숙련은 지식노동자집단에서 크게 요구될 것이며, 다른 노동자집단은 이로부터 배제됨으로써 성찰성의 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업조직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는 권력분산형 작업조직이 중심적인 작업조직으로 자리잡게 된다. 쌍방향적 의사소통은 권력이 집중화되며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이 단선적이었던 일방향적 의사소통방식과 성격을 달리한다. 수직적 위계구조를 바탕으로 한 테일러-포드주의적 작업조직에서는 하위 부서나 하위 직무수행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살려 내지 못함으로써 급변하는 시장수요, 기술변화 등 조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었다. 한 예로 부·과제 해체와 팀제 강화는 이러한 인식에 바탕하고 있다. 팀제는 종전의 의사결정과정의 중층적 성격을 단순화시키고 팀구성원들이 비교적 자율적 위치에서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토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분권화의 토대위에서 팀에 자율성이 부여됨으로써 팀구성원들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망의 형성은 이같은 분권화를 촉진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의사결정의 집중화를 가능하게 한다.

노동통제는 관료제적 통제에서 포스트 관료제적 통제로 전환되고 있다. 포스트 관료제적 통제는 관료제적 통제보다 덜 직접적이고 훨씬 유연한 형태의 통제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명시적 규칙의 제거, 과업의 탈테일러주의화, 비가시적 통제의 확대 등을 수반한다. 이것은 컴퓨터 기술에 의해 관리적 헤게모니가 확보됨으로써 가능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감시는 훨씬 비가시적이고 전자적으로 진행되어 감시의 강도와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한편, 테일러-포드주의적 생산체계와는 달리 정보사회에서의 생산체계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조직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고용형태도 다양해진다. 이것은 정보기술과 자동화의 확산으로 고정 인력의 비중이 감소하는 등 생산과정의 변화로 고용형태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유연화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생산의 유연성에 기반한 고용의 유연성은 일반적으로 고용의 불안정을 야기한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정보기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항상 긍정적인 것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일관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신기술발전에 의한 일자리 상실은 일자리 증가라는 요인에 의해 상쇄될 가능성이 있고 그 반대의 영향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사회에서 신기술혁신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경제구조와 작업장의 객관적 조건의 변화는 노동운동에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이 노동절약적 성격이 강한데다 고용형태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노동자간의 연대감을 떨어뜨리고 정체감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경제의 지식화, 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의 이질성과 계층구조의 복잡성 증대로 산업노동자에 기반을 두었던 노동운동이 변화에 직면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 경제속에서 기업간 경쟁의 가속화와 재구조화 전략은 노동운동의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정보사회에서 노동세계는 테일러-포드즘적 생산체계의 한계와 그 극복 과정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재구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화, 재구조화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혁신 등 조직 내외적 요인들의 결합에 기인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성찰적 노동의 비중이 커지며 노동의 질적 상승은 이러한 성찰적 지식노동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권력분산형 작업조직으로의 재편, 포스트 관료제적 노동통제와 전자감시의 증대,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고용의 유연성 그리고 노동운동의 약화 등도 정보사회의 노동세계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이다.

참 고 문 헌

- 김진영, 1994, 「정보기술과 화이트칼라 노동」, 한울아카데미.
- 권태환·조형재, 1997. 「정보사회의 이해」, 미래미디어.
- 박길성, 1996. 「세계화: 자본과 문화의 구조변동」, 사회비평사.
- 박형준, 1994. “신기술혁명과 국제분업체제의 변화”, 박형준 외, 1994. 「21세기 프론티어」, 길벗.
- 선한승, 1996. “정보사회와 노동세계 변화의 궤적”, 「정보사회와 사회윤리」, 아산사회사업복지재단.
- Aglietta, M. 1979, *A Theory of Capitalist Regulation*, New Left Books.
- Appelbaum, E. and R. Batt. 1994. *The New American Workplace: Transforming Work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Ithaca: ILR Press.
- Baudrillard, J. 1983a, *In the Shadow of the Silent Majorities*. Translated by P. Foss et al., New York: Semiotext(e).
- _____. 1983b, *Simulations*. Translated by P. Foss et al., New York: Semiotext(e).
- _____. 1993, *Symbolic Exchange and Death*, Translated by I. Hamilton Grant, Sage.
- Bell, D.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 _____. 1980, *The Winding Passage: Essays and Sociological Journeys 1960~1980*, New York: Basic Books.
- _____. 1981, “The Information Society: The Social Framework of the Information Society,” in T. Forester(ed.), *The Microelectronics Revolution*, Cambridge: The MIT Press.
- Castells, M. 1989, *The Informational City: Information Technology,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Urban-Regional Process*, Oxford: Blackwell.
- _____. 1993. “The Informational Economy and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in M. Carnoy et al.(eds.), *The New Global Economy in the Information Age: Reflection on Our Changing World*, 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_____. 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Christie, I. et al. 1990, *Employment Effects of New Technology in Manufacturing*, Policy Studies Institute.

- Clegg, S. and D. Dunkerley. 1980, *Organization, Class and Control*,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Dicken, P. 1992, *Global Shift: The Internationalization of Economic Activity*. 2nd ed. Paul Chapman.
- Form. W. et al. 1988, "The Impact of Technology on Work Organization and Work Outcomes: A Conceptual Framework and Research Agenda," in G. Gavkas & P. England(eds.), *Industry, Firms and Jobs: Sociological and Economic Approaches*, Plenum Press.
- Foster, J. 1989, "The Age of Restructuring," in Macedon and Tabb(eds.), *Instability and Change in the World Economy*, MR Press.
- Foucault, M. 1979,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Harmondsworth: Penguin, Peregrine Books.
- Francis, A. 1980. *New Technology at Work*, Oxford: Clarendon Press.
- Freeman, C. 1987, "Information Technology and Change in Techno-Economic Paradigm," in C. Freeman and L. Soete(eds.), *Technical Change and Full Employment*, Oxford: Basil Blackwell.
- Freeman, C. and L. Soete. 1994, *Work for All or Mass Unemployment?: Computerised Technical Change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London: Printer Publishers.
- Friedman, A. L. 1990, "Managerial Strategies, Activities, Techniques and Technology," in D. Knights and H. Willmott(eds.), *Labour Process Theory*, London: The Macmillan Press.
- Fröbel, F., Heinrichs, J. and O. Kreye. 1980, *The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ddens, A. 1985, *The Nation State and Violence: Volume Two of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Cambridge: Polity.
- 1987, *Social Theory and Modern Sociology*, Cambridge: Polity.
-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이윤희 · 이현희 역, 『포스트모더니티』, 민영사, 1991.
- 1991, *Modern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Cambridge: Polity.
- Gospel, H. F. 1983, "Managerial Structures and Strategies: An Introduction," in H. F. Gospel and C. R. Littler(eds.), *Managerial Strategies and Industrial Relations*, London: Heinemann Educational Books.

- Habermas, J. 1989,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Translated by T. Burger, Cambridge: Polity.
- Hammer, M. and J. Champy. 1993, *Reengineering the Corporation*(안중호·박춘구 옮김, 『리엔지니어링 기업혁명』, 1993, 김영사).
- Harvey, 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Oxford: Blackwell.
- Hirschhorn, L. 1984, *Beyond Mechanization: Work and Technology in a Postindustrial Age*. Cambridge: MIT Press.
- Kelly, M. 1990, "New Process Technology, Job Design, and Work Organization: a Contingency Mode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Apr.
- Knights, D. and A. Sturdy. 1990, "New Technology and the Self-Disciplined Worker in the Insurance Industry," in I. Varcoe and M. Yearley(eds.). *Deciphering Science and Technology*, London: The Macmillan Press.
- Kumar, K. 1995, *From Post-Industrial to Post-Modern Society*, Cambridge: Blackwell Publishers.
- Lash, S. 1991, "Disintegrating Firms," *Socialist Review* 21.
- Lash, S. and J. Urry. 1994, *Economics of Signs and Space*, Sage.
- Lash, S. 1994, "Reflexivity and its Double: Structure, Aesthetics, Community," in U. Beck, A. Giddens, and S. Lash, *Reflexive Modernization*, Cambridge: Polity Press.
- Lee, G. L. 1988, "Managerial Strategi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Engineers," in D. Knights and H. Willmott(eds.), *New Technology and the Labour Process*, London: The Macmillan Press.
- Lipietz, A. 1987, *Mirages and Miracles: The Crises of Global Fordism*, Verso.
- Littler, C. R. 1982, "Deskilling and Changing Structures of Control," in S. Wood(ed.), *The Degradation of Work?*, London: Hutchinson.
- Littler, C. R. 1990, "The Labour Process Debate: A Theoretic Review 1974-1988," in D. Knights and H. Willmott(eds.), *Labour Process Theory*, London: The Macmillan Press.
- Lyon, D. 1994, *The Electronic Ey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achlup, F. 1962,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the United Stat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rtin, W. J. 1988, *The Information Society*, London: Aslib.

-, 1995,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London: Aslib
- Masuda, Y. 1985, "Computopia," in T. Forester(ed.), *The Information Technology Revolution*, Oxford: Blackwell.
- Masuda, Y. 1980, *The Information Society as Post-Industrial Society*, Tokyo: Institute for the Information Society.
- Miles, I. and J. Gershuny. 1986, "The Social Economics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M. Ferguson(ed.),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 Public Interest*, Sage.
- Naisbitt, J. 1982, *Megatrends: Ten New Directions Transforming our Lives*, New York: Warner Communications.
- Nora, S and A. Minc. 1980, *The Computerisation of Society: A Report to the President of France*. Cambridge: MIT Press.
- Orlikowski, W. J. 1988, "Computer Technology in Organizations: Some Critical Notes," in D. Knights and H. Willmott(eds.), *New Technology and the Labour Process*, London: The Macmillan Press.
- Perez, C. 1985, "Microelectronics, Long Waves and World Structural Change: New Perspectives for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13.
- Piore, M. and C. Sabel. 1984,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New York: Basic Books.
- Porat, M. 1977, *The Information Economy*, Washington D.C, Department of Commerce, Office of Telecommunications.
- Poster, M. 1990, *The Mode of Information: Poststructuralism and Social Context*, Cambridge: Polity.
- Reich, R. B. 1991, *The Work of Nations*, New York: Knopf.
- Rifkin, J. 1995, *The End of Work*, New York: Putnam.
- Rosen, M. and J. Baroudi. 1992. "Computer-Based Technology and the Emergence of New Forms of Managerial Control," in A. Sturdy, D. Knights and H. Willmott(eds.), *Skill and Consent*, London: Routledge.
- Schiller, H. 1973, *The Mind Managers*, Boston: Beacon Press.
- 1976, *Communication and Cultural Domination*, New York: International Arts and Sciences Press.
- 1981, *Who Knows: Information in the Age of the Fortune 500*, N.J.: Ablex.
- 1983a,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Who Benefits?," *Media Development* 4:

18-20.

- 1983b, "The World Crisis and the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Columbia Journal World Business*, 18(1) Spring.
- Shaiken, H. 1985, *Work Transform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Smart, B. 1992, *Modern Conditions, Postmodern Controversies*, London: Routledge.
- Sweezy, P. 1992, "Globalization: To What End?," *Monthly Review* 43 no.9/10
- Thompson, P. 1983, *The Nature of Work: An Introduction to Debates on the Labour Process*, London: Macmillan Publishers.
- Toffler, A. 1981, *The Third Wave*, New York: Bantan.
- 1990, *Power Shift*, New York: Bantan.
- Waters, M. 1995,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 Webster, F. 1995,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London: Routledge(조동기 역, 1997, 「정보사회이론」, 나남).
- Wilson, F. 1988, "Computer Numerical Control and Constraints," in D. Knights and H. Willmott(eds.), *New Technology and the Labour Process*, London: The Macmillan Press.
- Wood, S. 1989, "The Transformation of Work?," in S. Wood(ed.), *The Transformation of Work?*, London: Unwin Hyman.